

광해·인조 연간의 해인사 수다라장과 법보전 상량문 연구

A Study on the *Sangryang-muns* of *Sudara-jang* and *Beopbo-jeon* at *Haein-sa* in the Years of King *Gwanghae* and King *Injo*

서 치 상*

Seo, Chi-Sang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study on the substantial characters of the *sangryang-muns* written for the constructions of *Sudara-jang* and *Beopbo-jeon* at *Haein-sa* in the years of king *Gwanghae* and king *Injo*. On that basis, it also attempts to declare the first time that the Buddhist Order firstly used *long sangryang-mun*, and to presume the backgrounds of the construct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queen, Mrs. *Ryu* and court ladies of king *Gwanhae* had participated as donators to the constructions. Therefore, it is supposed that the constructions had been promoted by the queen's Buddhistic beliefs as well as the commemoration of the 6th award of eulogistic posthumous title to king *Gwanghae*.

Second, throughout the history of Korean Buddhism, *long sangryang-mun* was firstly used in the construction of *Sudara-jang*. Therefore, we can see the fact that *long sangryang-mun* was introduced to the Buddhist Order, as donation by royal families. But the *long sangryang-mun* couldn't be suitable for the traditional customs of Buddhism, the monks wrote additionally the *Balwon-mun*, so to speak, the prayer address.

Third, the *sangryang-mun* of *Beopbo-jeon* was written in the mixed format of *long sangryang-mun* and traditional *Balwon-mun*. It is supposed that the Buddhist monks wanted to keep the traditional customs.

Four, in the late period of *Joseon* dynasty, the same formats as the *sangryang-muns* of *Sudara-jang* and *Beopbo-jeon* have been widely used in the various Buddhist buildings. Consequently, it is supposed that these three *sangryang-muns* were the embryonic formats for the major types of the late Buddhist building *sangryang-muns*.

주제어 : 광해·인조연간, 해인사, 수다라장, 법보전, 긴 상량문, 발원문

Keywords: in the years of king *Gwanghae* and king *Injo*, *Haein-sa*, *Sudara-jang*, *Beopbo-jeon*, *long sangryang-mun*, *balwon-mun*

1. 머리말

해인사 장경판전 일곽의 수다라장과 법보전은 성종 19년(1488) 왕실의 지원으로 처음 건립되었다. 이후 두 건물은 130여 년이 지날 무렵 다시 왕실이 나서서 중수

하게 된다. 1964~1965년의 수리과정에서 발견된 광해 14년(1622)과 인조 2년(1624) 중수공사 때의 상량문 3건을 통해서 그 사실이 확인되었다.

상량문은 두 말할 필요 없이 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현장기록이다. 다만 임진왜란 전까지 궁실건축에 사용되었을 뿐 불교건축의 사례는 없다.¹⁾ 해인사의 두 건물에 대한 성종연간의 공사기록도 완공 3년 후 승정원동부승지 조위(曹偉 1454~1503)가 쓴

* Corresponding Author : csseo@pusan.ac.kr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해 연구되었음.

1) 서치상, 「여말선초 목조건축 부재 목서명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7권, 3호, 2018, 57쪽

「해인사증창기」²⁾만 있을 뿐이다. 이 글도 세조 때부터의 공사 추진과정을 개략적으로 간추린 것이다. 반면에 광해·인조연간의 상량문은 상량일자를 비롯해서 발원자인 왕실인물들의 면면과 공사 배경 등 여러 정보가 담겨져 있다. 특히 ‘긴 상량문’³⁾ 2건은 불교건축에 처음 사용된 것으로, 최초 도입시점을 알게 해 줄 뿐 아니라 이후 불교계 특유의 상량문 유형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이밖에 주목되는 것은 두 건물에 사용된 세 상량문의 형식이다. 수나라장(1622) 2건 중의 1건은 부재에 적힌 전래의 발원문 형식이다. 다른 1건은 문장으로 이름이 높았던 대사간 유몽인(柳夢寅, 1559~1623)의 글로, 한지에 적힌 ‘긴 상량문’ 형식이다. 그리고 2년 후의 법보전 1건은 축약한 ‘긴 상량문’에 발원문을 조합한 독특한 부재 목서이다. ‘긴 상량문’이 불교계에 처음 도입되던 시기의 같은 공사에 다른 세 형식의 상량문을 작성하게 된 초기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광해·인조연간의 해인사 수나라장과 법보전 상량문은 다음과 같은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먼저 불교계에서 전례가 없던 ‘긴 상량문’이 임진왜란 직후 왕실이 지원한 원당사찰 조영 때 처음 사용된 점이다. 아울러서 조영불사 때 시주자 등의 이름을 적던 관례에 따라 신, 구 두 형식을 조합한 상량문이 만들어지고, 이로부터 후대의 상량문 유형들로 발전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상량문 3건의 문장구성과 문체형식을 검토함으로써 불교계에 ‘긴 상량문’이 최초 도입된 시점과 배경을 확인하는 한편, 후대 상량문들과의 형식적 친연성 검토를 통해서 그 유형적 선구로서의 위치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제에 주안해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상량문 3건의 내용을 통해 광해 말년과 인조반정 직후의 원당사찰 조영에 대한 왕실의 지원양상을 살펴본다. 이는 ‘긴 상량문’이 불교계에 처음 도입된 시점과 그 배경을 알게 해 줄 뿐 아니라 각기 다른 세 형식의 상량문이 만들어진 이유를 추정하는 단서가 된다.

2) 조위, 「해인사증창기」, 『매계선생문집』 권4, 한국고전번역원 누리집

3) 서치상, 「고려시대 궁실건축 상량문 연구」, 건축역사연구, 25권, 6호, 2016, 46쪽에서 참고된다. 한문학계는 글자 수와 문형에 따라 ‘긴 상량문’과 ‘짧은 상량문’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건축사학계도 마찬가지이다. ‘긴 상량문’은 서사·본사·육위송·결사 등 4단락에 따라 대구식 변려체 위주로 수백 자 이상에 걸쳐 서술되는 반면 ‘짧은 상량문’은 주로 종도리 받침장혀 밑면 상, 하의 제약문자 사이에 20여 자로 입주상량일시를 간략히 적는다.

둘째, 상량문 3건의 문장구성과 문체특성을 비교, 검토한다. 이는 왕실에서 내려준 ‘긴 상량문’과 별도로 여전히 전래의 발원문을 함께 사용했으며, 점차 신, 구의 두 형식을 조합해서 불교계 특유의 상량문을 만들게 된 과정을 규명하는 단서가 된다.

셋째, 3건의 상량문과 이후의 여러 사찰에서 작성한 상량문들과의 형식적 친연성을 검토한다. 이는 임진왜란 직후 해인사의 두 건물에 사용된 상량문들이 유형적으로 후대 불교건축 상량문의 선구적 위치에 있음을 규명하는 단서가 된다.

한편 두 건물의 상량문은 1964~1965년의 수리 때 발견된 후 다음의 문헌들에 채록되어 있다. 먼저 광해 14년(1622) 수나라장 공사 때의 발원문 형식의 1건은 『고고미술 6권 10·11호』(한국미술사학회, 1979. 11, 138~139쪽)에 「해인사 경판고(남각) 상량문」이란 제목으로, 유몽인의 ‘긴 상량문’ 1건도 같은 책(140쪽)에 「가야산 해인사 팔만대장경전 상량문」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또 인조 2년(1624) 법보전 공사 때의 축약된 ‘긴 상량문’ 1건은 위의 같은 책(30~31쪽)에 실려 있을 뿐 아니라 <한국고전번역원 누리집>에서 원문과 번역문을 검색할 수 있다.⁴⁾

현재까지 상량문 3건 중 수나라장의 ‘긴 상량문’ 1건만 번역되었고, 법보전의 1건은 채록 때 일부 글자가 결락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 후의 문맥을 살펴서 결락부를 보완하여 원문을 수정하고, 원래 뜻에 가깝게 번역한 후 비교 및 검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조선 후기 불교건축 상량문의 유형적 계통성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의의가 있다.

2. 수나라장과 법보전 중수공사

2.1. 성종연간의 중수공사

해인사에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건물이 언제 처음 지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고려 때부터 빈번한 외침으로 강화도 선원사에 있던 팔만대장경을 태조 7년(1398) 서울 지천사로 옮겼다가 정종 원년(1399)에 해인사로 옮겨왔다고 한다.⁵⁾ 따라서 옮겨올 무렵에는 어떤 형태로든 건물이 존재했을 것이다. 이는 성종연간 공사 때의 「해인사증수기」(1491)에서 어느 정도 확인된다. 세조 4년(1458) 왕이 죽헌 등을 시켜 해인사에서 대장

4) 이후 해인사, 문화재청, 『해인사 장경판전 실측조사보고서』, 2002, 90~94쪽에 상량문 3건의 원문이 실려 있다.

5) 한국불교연구원, 『한국의 사찰 7-해인사』, 일지사, 1980, 42쪽

경 50부를 인출토록 했다든지, 또 신미, 학조 등으로 하여금 장경판당을 시찰케 한 결과 비좁고 허술하므로 경상감사에게 명하여 40여 칸을 다시 짓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조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자 정희왕후가 나섰지만 역시 죽으므로 인수대비와 인혜왕비가 학조를 감독관으로 삼아 내수사의 쌀과 옷감을 회사하고, 도료장 박중석 등을 보내서 30칸으로 개축한 후 보안당(普眼堂)이라 이름 지었다⁶⁾고 했다. 성종 14년(1488)에 새 건물로 다시 지었음을 알게 해준다.

한편 지금의 법보전과 수다라장의 칸수는 각기 도리통 15칸, 보통 2칸이다. 흔히 도리통만 적는 관례로는 위의 글에 언급한 30칸과 일치한다. 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수다라장 상량문(1622)에는 무너지고 비 새어 지낸 지 오래되어 웅장한 백 칸 규모로 지었다⁷⁾ 했고, 법보전 상량문(1624)에도 보전을 다시 경영했다⁸⁾고 적었다. 그간 수리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30칸이라 함은 두 건물의 도리통을 합친 칸수이며, 따라서 두 건물이 함께 지어졌음이 분명하다 하겠다.

수다라장과 법보전은 숙종 21년(1695)의 화재 때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성종연간의 창건 이래 별다른 공사가 없었다고 보아 왔다. 그러다가 1964~1965년의 수리 때 광해·인조연간의 상량문이 발견됨으로써 창건된 지 130여 년 후에 큰 공사가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2.2. 광해·인조연간의 중수공사

두 건물의 상량문에는 광해군 비 문성군 유씨(1576~1623)를 비롯한 궁중여인들 대부분이 공덕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왕실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었겠지만 공사 중에 인조반정이 발생한 때문인지 이를 기록한 문헌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상량문의 내용과 저자, 시주자의 면면, 그리고 『광해군일기』의 행간에서 공사의 배경을 엿볼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수다라장과 법보전 상량문에는 각기 ‘천계 2년(1622) 임술 7월 18일’과 ‘천계 4년(1624) 세차 갑자 4월 엽일

(念日, 20일)’로 상량일자가 적혀 있다. 흔히 상량 후 1~2개월 내에 낙성한 예로 보면 수다라장은 광해군 폐위 전에 완공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왕권의 흔들림이나 반정의 징후가 없었던 때이므로 왕실과 관부의 돈독한 후원 하에 완공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법보전의 상량은 인조 2년(1624) 4월로, 수다라장보다 2년 정도 늦다. 원래 두 건물 공사를 동시에 시작했는지, 아니면 물력이 많이 들어가는 탓에 수다라장을 먼저 지은 후 법보전 공사를 시작했는지 알 수 없다. 어쨌든 법보전 상량 때는 광해군이 폐위되어 강화도에 위리안치된 상태였고, 폐비 유씨나 폐세자 지(1598~1623), 폐세자빈 박씨(1598~1623), 소용 정씨(?~1623) 등은 죽고 없었다.⁹⁾ 집권세력이 바뀌고 공덕주들마저 사라지면서 늦게 시작한 법보전 공사는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미 시작한 공사이고, 폐주 왕실의 죽은 이들을 위한 추복(追福)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교계의 일로 치부하여 공사를 이어가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다 팔만대장경이란 국가적 보물의 보관을 위한 공사였고, 인조와 각별했던 벽암 각성(碧巖覺性, 1575~1660)이란 큰 인물이 주관한 점도 감안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¹⁰⁾

한편 대규모 불사조영의 배경으로 우선 주목되는 것은 왕비 유씨의 호불 성향이다. 그녀는 평소 대궐에서 불상을 만들어 여러 절에 하사하고 항상 축원하되 후생에 다시는 왕가의 지어미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빌 정도로 불심이 깊었다고 한다.¹¹⁾ 또 야사에 전해지듯 남편의 중립외교를 반대하고 친명배금을 주장했을 만큼 강단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말년은 남편에 의한 연이은 옥사에다 비대해진 김개시(?~1623) 일당의 전횡을 제

9) 문성군 유씨는 판윤 유자신(1541~1612)의 딸로, 광해군의 부인으로 간택된 후 왕세자빈을 거쳐 왕비가 된다. 그러다가 1623년 3월 12일 인조반정으로 남편과 함께 폐위되어 강화도에 유배되고, 그 해 6월 폐세자 지와 며느리 박씨가 탈출하려다 실패 후 자결한 데 충격을 받아 폐위 7개월 여 만에 화병으로 죽었다. 또 광해군이 총애했던 소용 정씨는 인조반정이 발생한 날 자결했다.

10) 한국불교연구원, 『한국의 사찰 5-법주사』, 일지사, 1975, 101쪽에서 전제. 白谷 處能의 白谷集에 수록된 「賜報恩閣教團照國一都大禪師狀」에는 광해 10년(1618) 왕이 淸溪寺에서 큰 재를 베풀고 宮使를 파견하여 碧巖을 모셔와 설법을 듣고 金襴袈裟를 하사하기도 했다. 또 인조 2년(1624) 조정에서 南漢山城을 축조하려 할 때 스님에게 八道都摠攝의 직위를 주어 승군을 이끌고 築城의 일을 맡게 했다. 3년간 걸린 이 노역을 마치자 報恩閣教團照國一都大禪師의 직을 내리고 동시에 의발을 하사하여 공을 치하하는 등 당시의 불교계를 대표하던 승려로, 조정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11)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상권』, 보림각, 1981, 487쪽, ‘光海君之庶妃柳氏 嘗崇信佛道 於宮中 刻木範土 造佛像 以賜內外寺刹 常祝曰 願後世 勿爲王家婦’

6) 조위, 앞 글, ‘我世祖惠莊大王…(중략)…天順戊寅 命僧竹軒等 就本寺 印大藏經五十件 又命惠覺 尊者 信眉 燈谷 學祖等往視之 藏經之堂隘且陋 仍命本道監司 稍增舊制 措(構의 오자)四十餘間 越十一年戊子 世祖上賓 癸卯 貞熹昇遐 仁粹王大妃 仁惠王大妃殿下 遙追先志 凡所以嗣徽音而薦冥福者 無所不盡其心 而悼貞熹之有志而未就也 則又命學祖 往董其役 戊申春 施內需司米布若干石匹 遣都料匠朴仲石等 改構藏經板堂三十間 扁曰普眼堂’

7) 유몽인, 「가야산 팔만대장경전 상량문」(1622), ‘結構之渠渠百間 壞漏之苒苒幾載 誰令闔闔之摧覆 化作隆隆之畫堂’

8) 노곡 율송헌, 「천계 4년 세차 갑자 4월 엽일 대장전 상량문」(1624), ‘於是 重營寶殿 轉揭榮名掛旗樹’

어하지 못하고 폐모로 반정의 구실을 만든 데다 필요 이상의 궁궐공사로 재정난과 민생난이 초래되고 있었다.¹²⁾ 그런 처지에서 불력에 의지하여 지내던 중 해인사 조영불사의 대공덕주로 나섰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 무렵에 왕이 존호를 받은 일이다.¹³⁾ 존호란 국가에 큰 경사가 있거나 왕이 좋은 업적을 이뤘을 때 신하들이 주청해 올리는 일을 말한다. 명예가 높아지는 만큼 왕들마다 은근히 존호를 기다렸을 텐데 광해군은 무려 6차례나 받아서¹⁴⁾ 역대 왕들 중에 가장 많은 존호를 갖게 된다.¹⁵⁾ 특히 해인사의 조영불사 한 해 전인 광해 13년(1621) 10월 여섯 번째로 ‘건 의수정 창도승업(建義守正彰道崇業)’이란 존호를 받게 되었다. 이듬해 수다라장 상량문 2건에, 그 동안의 존호들과 합쳐 ‘체천홍운후덕홍공 융봉현보무정중희 신성영속흠문인무 서륜입기명성광렬 예철장의장헌순정 건의수정창도승업(體天興運後德弘功 隆奉顯保懋定重熙 神聖英肅欽文仁武 敘倫立紀明誠光烈 睿哲莊毅章憲順靖 建義守正彰道崇業)’이란 48자의 긴 존호를 적은 데서 그런 추측이 가능하다.

당시 왕이 존호를 받는 것은 왕실이나 국가적으로 큰 경사였다. 광해 9년(1617) 10월 3번째 존호를 받을 때는 왕이 정전에 나가 받을 때 왕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축하를 올렸으며, 전국에 교서를 반포하여 잡범으로서 사형죄 이하는 사면하고, 백관에게는 품계를 올려주되 더 올라갈 품계가 없는 자는 대신 올려주는¹⁶⁾ 등으로 크게 기념한 적 있다. 특히 6번째 존호는 광해 10년

(1618) 평안병사 성우길의 아들과 사위가 자기 아버지의 군관들을 이끌고 창주 지역에 모여 사냥에 나섰다가 그 길로 중국 경계로 말을 달려 중국인들에게 발각되어 도망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중국 황제에게 소상히 변무(辨誣)해서 오히려 상으로 은을 받게 되었다.¹⁷⁾ 이를 명분으로 왕에게 6번째 존호가 수여되고, 널리 반사(頒赦)하는 한편 증광시를 실시하기까지 했다.¹⁸⁾ 왕비 유씨 등이 이를 기념해서 해인사를 원당으로 지정하고 불사의 대시주로 나섰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만 왕비의 호불 성향이나 왕의 존호 수여를 두 건물의 중수공사와 연결 지어 기록한 문헌은 없다. 가능성은 크지만 확실하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사료 발굴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상량문 3건의 형식과 내용

3.1. 수다라장의 상량문 2건

1965년 5월 20일의 수리공사 때 어칸 종도리 받침장허 윗면에서 발견된 수다라장 상량문 2건(1622) 중의 1건으로 전형적인 발원문 형식의 부재 목서이다. 또 다른 1건은 어칸 종도리 받침장허 하부 기문장치에서 의류 4점과 함께 발견된 한지 목서로, 당시까지 불교계가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던 통식적인 ‘긴 상량문’이다.

발원문 형식의 글은 전체 1,854자에 걸쳐 ‘공사일자·삼전축수문·관계자이름’ 순의 3단락으로 구성된다.¹⁹⁾

17) 『광해군일기』 광해 10년(1618) 4월 11일 경자초

18) 『광해군일기』 광해 13년(1621) 10월 14일 신사조, ‘禮曹啓曰 今此辨誣賜銀 明大義於天下 銷讒說於華夏 追崇受號 慶禮既完 增廣取人 在所不已 自前國有大慶 必設科舉 前規已成 請依近例舉行 傳答曰允’

19) 한국미술사학회, 『고고미술 6권 10·11호』, 한국미술사학회, 1967. 11. 138~139쪽, 그리고 해인사·문화재청, 『해인사 장경판전 실측조사보고서』, 2002, 91~91쪽에 실려 있다. 전자는 말미의 관계자이름을 중간에 생략한 반면, 후자는 전체를 실었으므로 이를 전제한다.

‘天啓二年壬戌七月十八日 大藏殿上樑 成造大施主 體天興運後德弘功 隆奉顯保懋之重熙 神聖英肅欽文仁武 敘倫立紀明誠光烈 睿哲莊毅章憲順靖 建義守正彰道崇業 主上殿下壽萬歲 成造大施主 章烈敬徽貞聖(明)淑顯愼靜順 王妃殿下壽萬歲 王世子邸壽齊年 世子嬪朴氏邸下壽千秋 粹嬪許氏乙未生 貴人洪氏辛丑生 貴人尹氏壬寅生 昭儀權氏癸卯生 淑儀元氏甲辰生 淑容任氏乙未生 淑容鄭氏丙申生 翁主李氏乙未生 李氏戊午生 尙宮崔氏乙巳生 尙宮崔氏丁未生 尙宮李氏庚戌生 尙宮金氏甲辰生 尙宮韓氏丁巳生 尙宮趙氏癸丑生 尙宮金氏丙寅生 尙宮李氏丙子生 尙宮崔氏癸未生 尙宮李氏壬午生 尙宮劉氏癸未生 尙宮金氏甲申生 權氏乙酉生 金氏己丑生 方氏丙戌生 尙宮金氏庚申生(이상 중앙간 종도리 저면 목서)

尙宮比丘尼朴氏 比丘尼道明 比丘尼伊行 比丘尼戒明 比丘尼○聰 比丘尼安空 比丘尼惠全 比丘尼戒一 比丘尼大珠 比丘尼性慧 比丘尼敬雲 比丘尼○寶 比丘尼智岑 比丘尼道應 張氏德○ 高氏良玉 金氏世玉 車氏必福 孫氏德只 車氏 李氏○介 ○金廣比介 山中大德 曹溪宗大禪師覺性 曹溪宗大禪師應祥 曹溪宗大德惠旭 山中知識 乘雲 宗師

12) 널리 알려진 야사로, <namu.wiki/w/문성군부인> 등에서 참고된다.

13) 『광해군일기』 광해 13년(1621) 10월 12일 기묘조, ‘王御仁政殿行上尊號禮頒赦’

14) 이광렬, <한국사컨텐츠> <http://contents.koreanhistory.or.kr>

15) 『광해군일기』 광해 9년(1617) 10월 30일 신유조, ‘1617년 명 만력 45년(1617) 영의정 기자현 이하가 옥책과 인보를 받들고 가서 ‘서륜입기 명성광렬(敘倫立紀明誠光烈)’이라는 존호를 추가하여 올렸는데 세 가지 무고를 번론하여 해명하였기 때문이다. 앞서 임자년(1612) 10월에 올린 존호인 ‘체천홍운 준덕홍공(體天興運俊德弘功)’은 임진왜란 때 나라를 다시 일으킨 공로이다. 병진년(1616) 10월에 올린 존호인 ‘신성영속 흠문인무(神聖英肅欽文仁武)’는 임해·영창·진릉·능창을 죽인 공로 때문으로 이번에 더 올린 것을 합하면 모두 24자이다. 또 무오년(1618) 9월에 중묘사직을 받들어 모신 공로에 대해, 민인백의 상소로 인하여, ‘융봉현보 무정중희(隆奉顯保懋定重熙)’라는 존호를 더 올렸고, 경신년(1620) 4월에는 허균을 주벌한 공으로 ‘예철장의 장헌순정(睿哲莊毅章憲順靖)’이라는 존호를 더 올렸으므로 모두 합하면 40자이다. 그 후(1621) 6번째로 황제의 칙서가 내려온 것으로 인하여 ‘건의수정 창도승업(建義守正彰道崇業)’이란 존호를 더 올려서 모두 48자에 달하게 되었다.’

16) 『광해군일기』 광해 13년(1621) 10월 12일 기묘조, ‘王御正殿以受之 王世子率百官陳賀 頒赦八方 赦雜犯死罪以下 加百官資 資窮者代加’

첫머리에 ‘천계 2년(1622) 임술 7월 18일 대장전 상량’이라 했으므로 상량 때의 글이 분명하다. 또 삼전축수문은 성조대시주로 이름을 올린 광해군과 왕비 유씨, 왕세자 지, 세자빈 박씨의 만수무강을 비는 축문이다. 여기서 광해군의 존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48자로 전부 다 적고, 왕비는 ‘장열경휘정성 명숙현신정순(章烈敬徽貞聖明淑顯慎靜順)’으로 적었다. 흔히 ‘주상전하’나 ‘왕비전

法堅 宗師靈眞 曹溪宗師性玄 大德天運 前本道聰○○○○ 知識戒訓 宗師雪晴 宗師德日 宗師弘靖 行熙 學玄 大木秩 大禪師 施主○大木 空俊 施主兼邊首信旭 施主兼邊首雲秀 玄默 印岑 來往施主兼道祥 應天 道岩 性寬 楚淳 一禪 一淳 性覺 依淨 印覺 處○印覺 ○信 助役秩 淨學 兼施主 信鑑 來往施主 靈澤 冲遠 冲徽 牧馬 宋山南 供養主秩 法淨 尙岑 冲隱 工器 道林 助緣 清信居士金福兩主 外別 座元有比丘 都大別座兼施主處 佛尊禪一比丘 本寺 前本寺住持 大德 元惠比丘 前本寺住持 大德靈瑞比丘 前住持 惠靈比丘 老德 玉心比 丘 大禪 圓熙比丘 海云比丘 天寶比丘 代將 允和比丘 智寬比丘 勝 還比丘 施主 守軒比丘 惠天比丘 祖戒比丘 祖鑑比丘 祖日比丘 克倫 比丘 性冠比丘 日英比丘 海淨比丘 天甘比丘 敬熙比丘 惠潑比丘 辛 眞比丘 施主 性眞比丘 惠敦比丘 楚訓比丘 性澄比丘 法海比丘 虛應 比丘 坦禪比丘 靈云比丘 靈岑比丘 靈俊比丘 黃弘比丘 靈行比丘 施 主 法哲比丘 琢璘比丘 哲元比丘 ○○比丘 賁能比丘 冲鑑比丘 尙敦 比丘 琢滹比丘 琢○比丘 瑞軒比丘 三江兼施主 雙倫 直含 性寬 施 主 庫別座祖鑑 海淡 書記 文哲辛卯生 惠(曹)溪宗大禪師 本寺住持兼 大○勸化 比丘戒眞丁亥生 嘉善大夫行陝川郡守曹蘭瑞兩位 行慶尙道 觀察使兼巡察使金指南兩位(이상 중앙간 등 제1종도리 저면 목서) 成造大施主劉貴南兩主 供養大施主陳後生兩主 布施大施主 文哲比丘 布施大施主 學悅比丘 ○醫大施主 金致守兩位 清信社堂母注叱德單 (身)末醫大施主 清信居士金利兩主 施主 薛氏乙酉生 李氏乙未 金氏 乙丑 崔氏己亥 李氏丁酉 朴氏甲午 金氏乙未 金氏丙申 林氏甲辰 李 氏癸卯 韓氏庚子 姜氏丁酉 朴氏庚子 崔氏甲午 李氏庚子 金氏甲辰 文氏丙午 崔氏壬寅 崔氏辛丑 尹氏癸巳 李氏戊戌 邊氏辛丑 尹氏 甲辰 李氏癸卯 李氏丙○ 尹氏戊申 金氏庚子 梁氏壬寅 金氏戊午 奇氏 伯伊 道離 玉丹 好德 業伊 禮介 春月 仇叱介 春分 善玉 春伊 林氏 丙子 嘉善大夫金德年 通政大夫禦侮將司果香○ 成造都監 文春孫兩 主 營建都監 李忠良 韓氏 李氏 尹氏 李氏 李氏 元守身兩主 夫人金 氏 元氏 趙裕善兩主 柳斗立兩主 趙羽漢兩主 柳眉白兩主 貞敬夫人 崔氏 李敏樹 夫人柳氏 李敏得兩主 夫人田氏 李敏仲兩主 朴氏 方承 男兩主 方承哲兩主 方承儉兩主 方義男兩主 阿只氏 方以正兩主 方 以民兩主 朴孝男兩主 主簿 李格兩主 兪知 鄭順邦兩主 夫人鄭氏 兪 知 朴善兩主 姜鄭氏 吳氏 豆乙介 生伊 女玉 愛女 莫今 劉氏 劉氏 應一 劉氏奉伊 崔氏宗岳 崔氏溫伊 吳敬業兩主 申大元兩主 宋氏 劉 彥冲兩主 金氏 朴應元兩主 韓隱元兩主 朴氏 朴貴男兩主 億介孫 朴 彥成兩主 德良 陣仁吉兩主 金應實兩主 梁氏 崔勝縛兩主 咸冲守兩 主 南信伊 兪使權以均 朴大行(?) 李彥徐 朴敬○ 鄭英新 李順行(?) 韓尙伊兩主 李之每 李士吉兩主 男義龍兩主 姜湖成兩主 李秋離兩主 林春伊兩主 朴仇叱建兩主 姜氏介孫 文介 韓氏貞分 高氏英玉 金氏 世玉 車氏必福 宋敬立兩主 池永男兩主 比丘行淨 比丘端會 崔末守 兩主 金仲仁兩主 李松河兩主 李介同兩主 趙分孫兩主 姜德守兩主 韓德勝兩主 林應璘兩主 朴敦日兩主 文今 趙大成兩主 李應成兩主 李末叱金兩主 ○乃 比丘智○ 比丘信一 李今守兩主 宋玉只 曷成達 兩主 韓氏慧淨 香春 九展 李(之)同兩主 朴春同兩主 池彥海兩主 比 丘勝巧 應天 雪珠 德均 信安 慈義 訂寶 尙岑 德文 依巧 守天 住淨 空印 金剛山楡岾寺住持 妙俊 住英 智閑 湖鑑 李順代兩主 孫介叱同 兩主 吳介伊兩主 張守兩主 己亥朴建兩主 朴彥守兩主 鄭思良兩主 巨妣 一德 夢代 鄭元權兩主 李守忠兩主 金萬世兩主 劉太會兩主 咸 雲祥兩主 李應叱入里兩主 萬今 金奉守兩主 姜明友兩主 黑介 德今 崔男守兩主 李貞湖兩主 敬玉 李英春兩主 柳鶴孫兩主 比介性學 比 丘智還 比丘弘貫 比丘妙淨 銀春 南生兩主 鐵物施主 道祥比丘 空俊 比丘 應天比丘 信旭比丘 玄默比丘 雲修比丘 印岑比丘 印寬比丘 性 寬比丘 楚淳比丘 一禪比丘 住靜比丘 印寬比丘 處學比丘 印寬比丘 妙 信比丘 道日比丘 冲隱比丘 一淳比丘 淨學比丘 助緣 比丘道岩(이 상 중앙간 종도리받침장혀 상면 목서)

하’로만 적는 여타 삼전축원문과 달리 긴 존호를 모두 적은 것이다. 왕에 대한 존호 수여가 공사의 배경이었을 가능성이 짐쳐지는 것이다.

이어서 관계자이름이 나열된다. 먼저 궁중여인은 수빈 허씨를 비롯해서 귀인 홍씨와 윤씨, 소의 권씨, 숙의 원씨, 숙용 임씨와 정씨²⁰⁾, 옹주 이씨, 상궁 최씨 등 14명, 궁인 3명 등 모두 25명이다. 또 도명 등 비구니 13명, 조계종대선사 각성을 비롯한 산중대덕, 목수 공준, 조역 정학, 조연 김복 양주, 화주 계진 등의 각종 소임 승려들과 맨 마지막의 합천군수와 경상도관찰사까지 모두 661명에 달한다. 왕실에서 내려주었을 ‘긴 상량문’과 별도로 시주자, 화주, 사임직, 조연, 공역 등 관계자이름을 넣는 발원문 형식의 글을 별도로 작성한 것이다.

반면에 같은 해의 다른 1건은 완전히 다른 형식의 글이다. 대사간 유몽인이 지은 ‘가야산팔만대장경전상량문(伽倻山八萬大藏經殿上樑文)’이란 제목의 1,106자로 된 통식적인 ‘긴 상량문’이다.²¹⁾ 문장은 고려 때의 궁실건축

20) 종3품의 숙용 임씨와 정씨는 특히 광해군이 사랑하던 후궁들로, 이후 정3품의 소용에 오르게 된다.

21) 유몽인, 앞 책, ‘二百年泰平禪風應時而作 八萬大藏經寶殿不日以成 僧俗齊懽 山河動色 竊以 七祖布教 兩宗承流 玉牒瑤編 演金仙之至論 琅函芝匣 翻雪山之神方 眞如之秘訣 孔彰 般若之善根 畢露 十方諸佛妙道咸陳 千劫恒河嘉言罔伏 塵刹利利鬼歎語而括囊 寂寂空空會歸旨而挈領 豈徒儒道釋之三淵所匯 抑亦始衷終之衆理斯涵 赤縣間三十六名山列王 壯石室之蓄 青丘中千百億多士闕關 玄金匙之開 仍念峻茲伽耶 鎮于荒徼 南維一裔 窮白頭之扶輿 東嶠千峯 挹滄溟之渤澥 崔仙子曾留鶴馭 曹處士寔所菟裘 碧嶂丹崖 隱約天台之煙月 垂泉深洑 依稀靈巖之洞天 紅流即鍊砂之仙源 素琴替靈川之寶筏 摩尼珠交映佛頂 窰堵波列樹禪龕 吟風灑 汎筆巖 往事已去 雞林黃 鶴嶺青 異說誰證 巔勝較不足多 而鴻寶實在茲 蓋聞大藏之經 創麗朝之盛葉 寄海印之伽藍 鳩四方之工 斤鉅如沐 緒千山之梓 鐫繡彌齡 原善本出自中州 集群書非止西梵 曼辭汎博 童壽不曾偏知 奧語瓌奇 黃香曷窺遺記 載酒而子雲難識 繡說而老聃倦聽 雕題戔戈 截林洞而息警 漆簡流汗 先亂離而示災 印松楮之可窮 屢勤蟹价 貨金壁而莫買 浪愁胡僧 上覆壓以藻標 天日晝晦 傍衡架爲蘭椅 鐵輪輻排 結構之渠渠百間 壞漏之苒苒幾載 誰令闐闐之摧霽 化作隆隆之畫堂 茲由運會河清 時丁海宴 金甌鏡淨 浩壽域之茫茫 黎首春融 謔僞諷之洩洩 爰有佛弟子 誕告衆優婆 無量慈悲 戶誘家道 多般勸戒 身後生前 民財已豐 人人曾寶海珍之施 國計斯阜 陳陳放倉 水衡之擅恭惟 章烈貞聖明淑王妃殿下 媿德慈仁 貳體宸極 問詩女史 躬周母之玄統 傳業儒文 斥漢后之黃老 誰云夫子之禱已久 亦知封人之祝難辭 進脫簪之規 植木莫如廣嗣 闕含飴之樂 渴望惟在承家 聞道不滅之優曇 能降無靈之洪祉 稽之往牒 世廟重新於成化之年 捐其帑儲 貞熹助功於教宗之請 豈但述聖祖神后百年之遺風 實乃祚大殿東宮萬福之亨運 彼徒枉也與梁也 尙見陰陽之來 矧翟飛如鳥革也 可無靈祐之應 宜令百間朱栱 日煦風疏 復使大廈長檐 陽開陰闔 則重重復復如山如陵而字字行行不蟬不朽 可(扁)牖爾環區萬生之閉 庶貽我聖人多子之禎 不勞金鑑 刮盡蓄眼之膜 開祥震索 快觀重明之離 行致茲貽之綿綿 佇俟螽斯之戢戢 既圭臬之定位 競剗劂之加功 舉雄樑而齊聲 效兒郎之唱偉 兒郎偉拋樑東 陰壑深深萬窟風 坐送紅溪流出洞 莫邀舟子入花叢 兒郎偉拋樑西 碧嶺參雲反照低 植杖晚林杉檜影 綠苔迷徑咽幽溪 兒郎偉拋樑南 屏擁層巒織翠嵐 俗客洗禪山鬼嚇 一溪流水淨潭潭 兒郎偉拋樑北 伽耶大嶽攢天色 斷開山足蔚蘭房 呵護神經玄武力 兒郎偉拋樑上 空翠夜寫星月朗 南極老人渡海來 金樓銅鞮天齊享 兒郎偉拋樑下 嶺外山河皆野馬 須彌原地作邦基 元氣蒼茫坐可藉

과 조선 초기 서울 남대문의 ‘긴 상량문’(1479)과 같이 서사·본사·육위송·결사 등 4단락으로 서술될 뿐 원문이나 관계자이름은 없다.²²⁾

서사는 전체 542자로, 첫말은 ‘절이(竊以, 몰래 생각해보니)’로 시작해서 불법홍포와 가야산의 승경을 읊은 후 대장경을 보관하는 경관고를 지은 지 오래되어 퇴락함에 따라 새로 짓게 된 배경을 적었다. 본사는 전체 282자로, 첫말은 ‘공유(恭惟, 삼가 생각건대)’로 시작해서 훌륭한 덕성과 인품을 갖춘 왕비 유씨가 시주자로나선 일을 성화(成化)연간의 정희왕후에 비견해서 찬양하는 내용이다. 육위송은 전체 162자로, 동·서·남·북·상·하 6방에 걸쳐 각기 ‘아랑위포랑○(兒郎偉拋樑○)’라는 첫 구 뒤에 7언 3구씩 전체 18구를 배당해서 완공될 건물의 모습과 6방으로 조망되는 주변 경관을 읊었다. 끝으로 결사는 전체 120자로, ‘엿드려 비옵건대(伏願上樑之後)’로 시작해서 불법용성과 태평성대를 비는 내용이다.

문체는 통식적인 ‘긴 상량문’의 원칙에 따라 4·6·7언 대구식의 변려체 위주이다. ‘2백년 태평 선풍이 때맞춰 일어나니, 팔만대장경보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공되었네. 승과 속이 모두 기뻐하고, 산과 강이 빛을 발하네(二百年泰平禪風 應時而作 八萬大藏經寶殿 不日以成 僧俗齊歡 山河動色)’라는 문장이나, ‘선풍 용성과 장경관전 완공’, ‘승속과 산하’와 같이 대구를 이룬다.

전고(典故)는 유·불·선을 가리지 않고 대단히 다양해서 최선자(崔致遠)와 조처사(曹植)를 비롯하여 여악(廬嶽)과 단사(丹砂), 계림(鷄林)과 곡령(鶴嶺), 홍보(鴻寶), 동수(童壽), 황향(黃香), 하청(河淸), 오창(敖倉), 한후(漢后)와 황노(黃老), 부자(夫子), 탈잠(脫簪), 주왕사유(周王四乳), 치장(植杖), 남극노인(南極老人), 반고씨(盤古氏) 등 중국과 신라, 조선의 고사까지 두루 인용했다. 뿐만 아니라 문체는 함축과 전아(典雅)의 멋을 한껏 드러낸다. 예컨대 서사의 말미에 적은 문장을 보면,

이에 하청의 운회를 만나 바다가 평온한 때였네. 금구와 거울이 맑고 크도대! 인수지역의 망망함이어! 백성의 살림은 봄처럼 화락하니 거리마다 노랫소리 가득

伏願上樑之後 山祇供瑞 海靈效祥 祈禱禳災 陋清涼爽燼之太壹 卍胤錫行 笑淵蛭蠃渡於甘泉 商后多苗 不億厥麗 周王四乳 有百其支 雲孫仍孫不知何人 目見福田之溢地 三千大千無窮世界 手撫壽嶽之後天 群生鼓舞於春臺 率土陶甄於華胥 雲敷列殿 那由他視若崇朝 天啟參宮 盤古氏來問故事’

22) 서치상, 「고려시대 궁실건축 상량문 연구」, 건축역사연구, 25권, 6호, 2016 및 「여말선초 목조건축 부재 목서명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7권 3호, 2018 에서 참고된다.

퍼지네. 이에 불제자가 있어 모든 청신녀에게 크게 고했다네. 무량한 자비를 집집마다 지켜야할 도리로 삼도록 권하고, 다반으로 생전과 사후에 권계했네. 이미 백성들의 재산이 풍요로우니, 사람마다 증들마다 바다의 진미를 베푼다네. 나라의 재정이 이처럼 융성하니 오창 수창이 넘쳐 나도다!!²³⁾

라 했다. 정치, 사회적으로 어려웠던 때였지만 태평성대와 불법용성을 과장되게 표현했다. 일률적이고 고정된 격식에다 미사여구를 한껏 구사하는 등 ‘긴 상량문’의 특징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 글자 수는 고려 때의 ‘긴 상량문’에 비해 더 많고, 전고도 다양해서 통식적인 ‘긴 상량문’으로서 손색이 없어 보인다.

3.2. 법보전의 상량문 1건

이 상량문은 1964년 가을의 수리 때 법보전의 어칸 종도리에서 발견된 부재 목서이다. 광해군 폐위 1년 뒤인 인조 2년(1624)에 작성되었지만 글자 수나 내용, 관계자이름은 2년 전 수나라장의 발원문 형식의 글과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수나라장의 2건과 달리 발원문과 ‘긴 상량문’이 혼합된 특이한 형식인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유몽인의 ‘긴 상량문’과 마찬가지로 불교계에서는 선례가 없는 새로운 형식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인조반정으로 집권세력이 바뀐 데다 불교계 특유의 관례를 유지하려던 의도에서 만든 것으로 짐작된다.

문장은 전체 1,699자로, ‘공사일자·축약된 긴 상량문·삼전축원문·관계자이름’ 순의 3단락으로 구성된다.²⁴⁾ 첫머리에 ‘천계 4년(1624) 갑자 4월 20일 대장전

23) 유몽인, 앞 책, ‘茲由運會河淸 時丁海安 金甌鏡淨 浩壽域之茫茫 黎首春融 蕩衢謳之洩洩 爰有佛弟子 誕告衆優婆 無量慈悲 戶誘家道 多般勸戒 身後生前 民財已豐 人人僧寶海珍之施 國計斯阜 陳陳敖倉 水衡之擅’

24) 한국미술사학회, 「고고미술 하권」, 통문관, 1979 및 해인사·문화재청, 「해인사 장경관전 실측조사보고서」, 2002에 실려 있다. 전자는 말미의 관계자이름을 중간에 생략한 반면, 후자는 전체를 실었으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전제한다.

‘○治平之道 道在乎一人 ○物之號 歸依乎佛法 既有薄伽之金文 可之龍宮之莊麗 於是 重營寶殿 轉揭榮名掛旗樹 以爲○兮 暉光麗日緝鴛鴦 ○(以)作瓦兮 瑞氣盈空列○奉 以俊秀執 玉帛之朝朝斯天作 以地擎○ 壺中之別天 風調雨順兮 盡霄壤(霽壤)而無體 事天敬佛兮 亨萬世 以斯年 遂爲短唱 助學脩梁

○梁四維兮 泰平天地亨无窮 俯有扶桑千萬里 擊壤謳歌滿路謠 伏願上樑之後 四緣日增 百靈欽德 消千災於春雲 興萬福於夏雲 天衣佛(拂)石 永曜松門之爾 施主蘆谷月松軒童 以備後來之笑具 因莊奉祝 體天興運後德弘功 隆奉顯保懋之重熙 神聖英肅欽文仁武 鉸倫立紀明誠光列 睿哲莊毅章憲順靖 建義守正彰道崇業 主上殿下壽萬歲 章烈敬徽貞聖明淑顯愼靜順王妣殿下生極樂 王世子邸下生極樂 世子嬪朴氏邸下生極樂 萬善同歸 開列于后 粹嬪許氏 貴人洪氏 貴人尹氏壬寅生 昭儀柳氏癸卯生 淑儀元氏甲辰生 淑容任氏乙未生 淑容鄭氏丙申生 翁主李氏乙未生 李氏戊午生 尙宮崔氏乙巳生 崔氏丁未生 李氏庚戌生 金氏甲辰生 韓氏丁巳生 趙氏癸丑生 金氏丙寅生 李氏丙子生 崔氏庚未生 李氏壬午生 劉氏癸未生 金氏甲申生 金氏庚申生 柳氏乙亥生 金氏己丑生 方氏丙戌生 薛氏乙亥生 李氏乙未生 金

상량문(天啓四年歲次甲子四月念日 大藏殿上樑文)이라 하여 전래의 발원문과 같이 먼저 공사일자를 적었다. 이어서 통식적인 ‘긴 상량문’처럼 4·6·7언을 섞었지만 서사나 본사를 흉내 내듯이 크게 축약했다. 그런 탓에 글자 수는 전체 217자에 불과해서 통식적인 ‘긴 상량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어떻든 ‘긴 상량문’의 4단락 첫머리의 상투적인 머리말들과 같은 단어를 쓴 데서 나름대로 ‘긴 상량문’의 구색을 갖추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단락은 33자로, ‘긴 상량문’의 서사 부분을 압축한 듯 ‘○(夫나 噫 등으로 추정)하니’로 시작해서 불법에 귀의하고, 가람이 더욱 융성하기를 기원하는 내용을

적었다. 또 둘째 단락은 85자로, 본사를 축약한 듯 ‘어서(於是, 이에)’로 시작해서 천지가 법보전 중건을 도우니 매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상량할 수 있게 된 사실을 적은 다음 상투적인 본사의 끝말인 ‘마침내 짧은 노래를 지어 들보 올리는 일을 돕는다(遂爲短唱 助舉脩梁)’로 마쳤다.

특히 셋째 단락의 육위송은 더욱 크게 축약했는데, ‘들보를 4방에 ○하니(○梁四維兮)’²⁵⁾로 시작해서 천지태평을 기원하는 내용을 7언 3구만 읊었다. 흔히 6방에 걸쳐 ‘아랑위포량○’에 이어 7언 3구씩 18구의 162자가 표준임에도 여기서는 4방을 합쳐 26자로 크게 줄인 것이다. 또 결사에 해당하는 넷째 단락은 51자로, ‘엎드려 비옵건대 상량한 후로(伏願上樑之後)’로 시작해서 천지사방이 안녕하고 재앙은 사라지며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통식적인 ‘긴 상량문’의 결사와 흡사하지만 크게 축약한 것은 다른 단락들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문장은 전래의 발원문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먼저 44자로 된 첫 부분은 삼전축원문으로, 폐주를 ‘주상전하’로 지칭해서 만수무강을 빈 반면, 죽은 폐비는 ‘장열경휘정성 명숙현신정순 왕비전하(章烈敬徽貞聖明淑顯愼靜順王妣殿下)’라는 식으로 존호를 적고, 앞서 죽은 폐세자와 폐세자빈과 더불어 극락왕생할 것을 비는 원문으로 적었다.

이어서 전체 327명의 관계자 이름을 적었다. 왕실인물은 수빈 허씨 등 상공 이상 9명, 이하 나인으로 보이는 45명 등 모두 54명이다. 왕비 유씨를 비롯해서 귀인 윤씨, 숙용 정씨 등 인조반정 때 죽거나 유배된 이들이 많아서인지 ‘만 가지 선을 행하더라도 모두 불성 하나로 돌아간다(萬善同歸 開列于后)’고 한 후 이들의 이름을 나열했다. 또 승려와 일반신도는 모두 268명이다. 특히 승려들에 대해서는 사임(寺任)이나 역명(役名)을 적지 않아서 이름만 적는 데 급급한 듯하다. 전체 수도 2년 전의 수다라장 공사 때의 661명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것이 정치상황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그래선지 글쓴이도 문장으로 이름난 최고위관료가 아니라 일반 신도로 추정되는 노곡 월송헌(蘆谷 月松軒)이다. 인조반정으로 왕실이나 조정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황에서 시주에 참여한 지역 사대부층 인물이 대신 쓴 듯하다. 나름대로 ‘긴 상량문’을 지었지만 서툰 때문인지 흉내만 낸 느낌이다. 단락마다 크게 축약된 데다 격식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氏己丑生 崔氏己亥生 李氏丁亥生 朴氏甲午生 金氏乙未生 金氏丙申生 林氏甲辰生 李氏癸未生 韓氏庚子生 姜氏丁亥生 朴氏庚子生 崔氏甲午生 李氏庚子生 金氏甲辰生 文氏丙午生 崔氏壬寅生 崔氏辛丑生 尹氏癸丑生 李氏戊戌生 邊氏辛丑生 尹氏甲辰生 李氏癸卯生 李氏丙申生 尹氏戊申生 金氏庚子生 梁氏壬寅生 金氏戊午生 比丘尼妙聰生極樂 嘉善大夫金德連兩主 通獻大夫御侮將軍司果香使文春孫兩主 香使李忠良兩主 成造大施主 俞貴男莫介兩主 供養施主 陣後生兩主 布施大施主 比丘辛淨 ○醫大施主 姜希文兩主 鐵物大施主 朴注乞兩主 食鹽大施主 崔千福兩主 椽木大施主 應玄比丘 蓋瓦大施主 刻再以兩主 施主 比丘元惠 李丁世兩主 五乞(?)未兩主 惟敬比丘 勝巧比丘 智述比丘 金貴守兩主 勝贊比丘 德俊比丘 靈印比丘 雙印比丘 道林比丘 金彥守兩主 朴正南兩主 未叱眞靈駕 小妣 嚴春福兩主 金己男兩主 白仁南兩主 尹興南兩主 李百千兩主 敬修比丘 寶敬比丘 一行比丘 公旭 寶明 崔彥春兩主 南應山兩主 金奉千兩主 德只 趙慈里兩主 百良 百從 小眞 依淨靈駕 學訥比丘 威順福兩主 修仁比丘 懶默比丘 德巧比丘 崔春守兩主 淨述比丘 元機記付込 母起眞兩主靈駕 河其之兩主 徐天守兩主 金仁守兩主 都潤祥兩主 李非良兩主 朴玉兩主 李順風兩主 注叱德兩主 金利兩主 徐文介兩主 禮之兩主 比丘靈澄 比丘禪淨 白依男兩主 尹得龍兩主 李同兩主 長命春兩主 比丘玉訓 戒銀 惠雄 淨和 法豈 金離守 朴千守兩主 勝天比丘 丁仁孫兩主 德文比丘 依雄比丘 寶淨比丘 尙林比丘 同緣尹龍 第一 天照比丘 金仲仁兩主 禹靈愼兩主 惠云比丘 禪云比丘 通信比丘 妙訓比丘 慮尙比丘 惠澄比丘 一訓比丘 三益比丘 戒信比丘 智云比丘 元印比丘 尙巧比丘 日訓比丘 淨行 草訓 惠俊 智粗 施主 尙眞比丘 元悟比丘 姜鶴奇兩主 金金山兩主 柳福兩主 李貴男兩主 辛悅比丘 莫德單身 信安比丘 雪興比丘 信正 運惠 元日 禪施 草彦(중도리 윗면) 本寺大德兼施主秩 通政家(嘉)善大夫 中樞副司 前摠攝 比丘大成 漕溪宗大禪師 각성비구 漕溪宗大禪師 前任持 比丘靈瑞 老師 性澄靈駕 玉心 前本寺住持 惠靈 敬寶 海云 處一 道日比丘 法淨比丘 卞銀乃兩主 性聰比丘 一禪比丘 文益比丘 性豈比丘 覺明比丘 孫介同兩主 鄭萬同兩主 李○世兩主 金順代兩主 比丘依巧 修天比丘 李革敏 銀春 金貴興兩主 刻鶴孫兩主 李永春 妍玉 景玉 法斐 比丘德林 鄭思良 尙岑 樂春 尹金伊 金龍 崔守平 金相金兩主 李永云 崔大俊兩主 小○代保體 李植平 白忠立 郭干億兩主 李男兩主 朴福守兩主 元日 道假 榮立 印意 玉寶 海日 比丘戒雄 都彥守兩主 尹禮元兩主 信悟 信玉 德瓊 比丘信學 朴億文兩主 信悅比丘 印宗(?)比丘 應林比丘 銀○保竹 金福守 林順祥 刻彥世 從月 萬惠比丘 李默兩主 釋允比丘 應海比丘 智海比丘 里香 宗隱比丘 李云兩主 戒寬比丘 懷悟比丘 德守比丘 敬禪比丘 夢代 徐冲敏兩主 語今單身 冲敏比丘 一玉比丘 妙淨比丘 弘贊比丘 智述比丘 秋屬 悟(?)今 性學比丘 金應祥 李台迪 宋仁寶 鄭德童 崔太白 李福只 趙香福 李應福 白莫仍 朴己男 李永生 玄旭比丘 法贊比丘 厚對 張香福 朴貴同 張德男 李應星 朱前億 梁繼立 孫得仁 金假春 魯假吉 姜益○ 朴應先 趙應道 朴應時 安勝日 金日兩主 韓英立 金末叱山兩主 李仁兩主 遭岳兩主 朴從伊兩主 芥伊 崔尙元兩主 朴汪里兩主 信旭比丘 寶訓比丘 淡行(?)比丘 玉禪比丘 宋台致兩主 法惠比丘 思罔比丘 自安比丘 百裕比丘 釋清比丘 信潮比丘 尾(중도리 아래면)

25) 첫말의 결자는 문맥상 ‘포(抛, 던지라)’로 추정된다.

4. 후대 불교건축 상량문과의 관계

4.1. '긴 상량문'의 도입과 새 형식의 모색

임진왜란 후 불교계는 전란 때의 의승군 활동으로 다소 그 입지가 향상되었다. 조정은 궁궐조영이나 산성축조에 승려를 동원하면서 그 존재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²⁶⁾ 사대부들도 사찰을 오가며 사적이나 승려 행장, 비문 등을 지어 주고 불사에 시주자로 참여하는 등 교류가 빈번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찰들은 전란 때 소실된 가람 복구를 자력만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 사찰은 신도층의 시주에 기대는 한편으로 왕실원당의 지정을 통해 공사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²⁷⁾ 임진왜란 직후 추진된 광해연간의 해인사 수다라장과 법보전 공사가 그 첫 사례였다.

조선 전기에도 원당사찰 조영에 왕실이 시주자로 나서고 내수사에서 비용을 마련해 준 적이 있었다. 성종연간의 도갑사 해탈문 공사(1473)가 대표적이다. 당시 작성된 종도리 목서에는 전체 119자로 '입주·상량일자, 삼전축수원문 및 관계자이름'이 적혀 있다. 그러나 이는 상량문이 아니라 발원문으로 사용된 글이다.²⁸⁾ 그 무렵까지 '긴 상량문'이 일반화되지 않는 데다 특히 불교계는 여전히 전래의 발원문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이후에도 원당사찰에 대한 왕실의 지원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다만 달라진 점은 문장이 뛰어난 최고위관료로 하여금 '긴 상량문'을 대신 지어준 것이다. 광해 14년(1622)의 해인사 수다라장 공사 때 유몽인이 지은 '긴 상량문'이 그 시초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일반사찰도 이를 따르기 시작했다. 주요 공정 때마다 공사일자와 원문, 관계자이름을 적는 발원문에서 벗어나 일반과 같이 '긴 상량문'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수다라장(1622)의 '긴 상량문'과 발원문, 그리고 2년 후 법보전(1624)의 축약된 '긴 상량문'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수다라장 공사에 '긴 상량문'과 별도로 발원문이 작성된 배경이다. 유몽인의 글과 같은 궁실건축의 '긴 상량문'에는 원문이나 시주자 이름을 적지 않는다. 이는 오래 전부터 시주자를 비롯해서 공장과 역군, 화주와 공양주, 노덕, 소자까지 공덕주로 이름을 올리는 관례에 맞지 않았을 것이다. 왕실이 내려

준 '긴 상량문'은 엄정한 격식과 화려한 문체로 왕실의 공덕을 칭송하는 송사(頌詞)이지 발원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긴 상량문'을 처음 접한 상황에서 따로 발원문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불교계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2년 후의 법보전 수리 때 '긴 상량문'과 발원문을 조합한 불교계 특유의 해법이다. 당시는 인조반정 직후로 공덕주었던 폐비 유씨, 폐세자 지, 폐세자빈 박씨 등은 죽고 없었다. 축수(祝壽)가 아니라 추복(追福)을 위한 원문이 들어가는 발원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²⁹⁾ 그렇다고 2년 전처럼 '긴 상량문'과 발원문을 따로 짓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긴 상량문'도 내려 줄 왕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긴 상량문'의 격식과 발원문을 조합해서 하나의 상량문을 만들게 된 이유이다. 발원문처럼 먼저 상량일자를 적고, 이어서 '긴 상량문', 원문, 관계자이름 순으로 적었던 것이다.

그러나 '긴 상량문' 부분은 익숙하지 않아선지 크게 축약한 데다 격식에 맞지 않는다. 육위송의 6방을 4유(四維)로 줄이고, 그것도 1방에 한해서 7언 3수만 읊은 탓에 통식적인 162자보다 훨씬 적은 21자에 불과하다. 나머지 단락들도 크게 축약해서 흥내만 낸듯하다. 그럼에도 2년 전 발원문을 따로 만들 때와 비교하면 '긴 상량문'을 적극 수용하려던 의도가 읽혀진다. 실제로 선조 41년(1608)의 상량문 사용에 대한 논란 해소³⁰⁾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긴 상량문'은 불교계까지 널리 보편화되었다. 다만 모든 사찰들이 통식적인 '긴 상량문'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발원문과 조합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해인사 법보전 상량문처럼 신, 구 두 형식의 조합하는 방식으로 불교계 특유의 상량문 유형을 만들게 된 것이다.

4.2. 후대 불교건축 상량문과의 친연성

해인사 수다라장과 법보전 상량문의 세 형식은 이후 많은 사찰에서 똑 같이 또는 부분 변용되어 사용되었다. 시기적인 선, 후 관계로는 세 형식이 후대의 유형적 선구였던 셈이다. <표 1>은 조선시대 궁실 및 불교건축 상량문 중 세 형식과 유사한 대표적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수다라장의 발원문(1622)과 같은 유형은 임진왜란 직후에 일부 사찰에서 확인된다. 예컨대 통도사 대웅

26) 박용숙, 「조선조 후기의 승역에 관한 고찰」, 『논문집』, 부산대학교, 1981, 481쪽

27) 한재수 외, 『한국건축통사』, 기문당, 2014, 529쪽

28) 서치상, 「여말선초 목조건축 부재 목서명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7권, 3호, 2018, 46쪽

29) 서치상, 「여말선초 목조건축 부재 목서명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7권, 3호, 2018, 52쪽, <부석사 조사당 종도리 받침장허 목서명>(1377) 등 발원문 형식의 글에는 선왕의 명복을 받고 현왕의 축수를 비는 원문이 들어 있다.

30) 서치상, 「고려시대 궁실건축 상량문 연구」, 건축역사연구, 25권, 6호, 2016, 48쪽 참조

전의 박공 내 서까래에 적힌 묵서(1644)³¹⁾는 입주·상 질·대정질·사내질·사내소자질 등 99명의 관계자 이름 표 1. 조선시대 궁실 및 불교건축 상량문의 유형과 대표 사례

구분	연도	건물명	저자	문장 구성	자수	비고		
발원문	1611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	연혁 + 공사일자 + 관계자	131	일반사찰		
	1622	합천 해인사 수다라장	-	공사일자 + 축수문 + 관계자	1,854	왕실원당		
	1625	안동 봉정사 극락전	-	연혁 + 공사일자 + 관계자	309	일반사찰		
	1644	양산 통도사 대웅전	-	공사일자 + 공장수	46			
	1657	양산 신흥사 대광전	-	공사일자 + 관계자	710			
	1657	산청 울곡사 대웅전	-	연혁 + 공사일자 + 관계자	609			
	1741	논산 쌍계사 봉황루	-	공사일자 + 관계자	202			
	1805	고창 문수사 문수전	-	연혁 + 공사일자 + 관계자	452			
긴 상량문	일반형	1479	서울 남대문	한계순	서사 + 본사 + 육위송 + 결사	574	궁실	
		1785	서울 창덕궁 수강재	정조	“	514		
		1793	서울 창덕궁 부용정	“	“	482		
		1834	서울 창경궁 경춘전	박기수	“	753		
		1864	서울 종부시 보각	이돈녕	“	592		
		1865	서울 경복궁 광화문	이유원	“	968		
		1888	서울 경복궁 교태전	김병시	“	700		
		“	서울 경복궁 강령전	이유원	“	908		
		1904	서울 덕수궁 중화전	이순익	“	684		
		1622	합천 해인사 수다라장	유몽인	서사 + 본사 + 육위송 + 결사	1,106		왕실원당
		1648	부산 범어사 심검당	-	서사 + 본사 + 육위송 + 결사 + 관계자	1,093		일반사찰
		1657	기장 장안사 대웅전	-	“	1,184		
	1658	부산 범어사 대웅전	관해	“	733			
	1684	부산 범어사 비로전	부유	“	1,042			
	1701	구례 화엄사 각황전	채계공	“	1,165			
	1730	대구 동화사 봉서루	민철	“	1,682			
	축약형	1731	합천 해인사 홍제암	영규	“	993	일반사찰	
		1753	고창 참당사 범당	이담재	“	988		
		1790	수원 용주사 창건	채팽운	서사 + 본사 + 육위송 + 결사	993	왕실원당	
		1812	부산 범어사 보제루	윤노동	서사 + 본사 + 육위송 + 결사 + 관계자	1,852	일반사찰	
		1835	영암 도갑사 미륵전	경은	“	1,326		
		1841	안동 봉정사 극락전	미상	“	517		
		1889	부산 범어사 미륵전	체훈	“	703		
		1896	대구 동화사 봉서루	석주	“	1,253		
1624		합천 해인사 법보전	월송현	공사일자 + 축약 상량문 + 축원문 + 관계자	1,699	왕실원당		
1716		울진 불영사 영산전	-	축약 상량문 + 관계자	539	일반사찰		
1843		울진 불영사 영산전	한철	“	790			
“		순천 송광사 원불당	금명	축약 상량문	448			
1899	순천 송광사 하사당	“	“	219				

량·개연일자에 이어 공장 수를 44자로 적고, 암막새 명문은 138자로 시주자 등의 이름을 적었다. 「양산신흥사 대광전상량문」(1657)³²⁾은 전체 569자로, 시주질·연화

에 이어 ‘순치 14년(1657) 정유년 4월 17일 상량기’라

31) 한국미술사학회, 『고고미술 상권』, 통문관, 1979, 295쪽, '順治二年甲申十一日粒(立)柱 同年八月初十日上樑 同年八月十八日椽 匠工二十餘名 上樑後十四名造鍊者(동편 박공 내 서까래 3본에 縱書 4행), 甲申年施主太正靈駕 施主惠倫比○ 施主懶雲靈○ 供養施主印行比○ 供養施主熙○ 供養大施主○○○○○○ 供養大施主徐召伊兩主 供養大施主朴仁兩主 供養大施主金應丑兩主 供養大施主莫介兩主 供養大施主敏軒比丘 ○○○○○○ 施主靈俊比丘 施主英戌○○○○○ 施主普○○○○○ 施主大日比○○○ 大化○○○○(女瓦막새 銘文)

32) 문화재관리국, 『上樑文集, 補修時 發見된 上樑文』, 1991, 233~235쪽, 「新興寺大光殿上樑記」(1657), '順治十四年丁酉 四月 十七日 上樑記 施主秩 供養大施主 金萬五兩主 金貴朴兩主 金厚立兩主 辛連祐兩主 張志金兩主 供養布施大施主 朴連伊兩主 一清比丘 供養施主 金芻末兩主 金先立兩主 供養大施主 女 今伊單身 供養施

主 金己男兩主 方恠石兩主 李朝先兩主 朴永國兩主 供養布施大施主 金命立兩主 布施施主 林大圭兩主 林海立兩主 金竹立兩主 女 今伊單身 金一男兩主 李仁山兩主 鐵物大施主 金金伊兩主 金戒奉兩主 金成五兩主 金戒生兩主 金禮男兩主) 布施大施主 鄭龍兩主 鐵物大施主 朴恠男兩主 末醫大施主 崔龍生兩主 末醫施主 徐玉生兩主 李春○兩主 食鹽大施主 鄭彥○兩主 沙器大施主 李日○兩主 眞末施主 仇○兩主 眞末施主 李○兩主 布施施主 趙凡○兩主 布施大施主 金順山單身 布施施主 金禮○單身 緣化秩 木手 俊英比丘 邊手 玄浚比丘 雪軒靈駕 雙倫比丘 ○倫比丘 靈一比丘 靈心比丘 玉淡比丘 天兩比丘 尙清比丘 尙輝比丘 尙彥比丘 大釘秩 貴景單身 別座 靈珠比丘 上供養主 明澤比丘 寺內秩 釋林比丘 虔敬比丘 敬和比丘 雙運比丘 雙彥比丘 六堅比丘 智尙比丘 一清比丘 行清比丘 眞甘比丘 海甘比丘 寺內秩 天兩比丘 淨仁比丘 海印比丘 惠淳比丘 惠英比丘 大英比丘 禪哲比丘 尙元比丘 靈云比丘 曇圭比丘 守熏比丘 守能比丘 儀信比丘 勝益比丘 玉明 戒信 信弘 梁仁福兩主 朴芻金兩主 寺內少者秩 善民 應立 春生 順命 天祿 莫龍 禮生 三寶 守能 首僧 海仁 執網 虔敬 助化 崔伊生單身 韓孫同兩主 助化 鐵物 方○○ 智尙比丘 法堂化主 信○岑比丘 順治十四年丁酉 四月十七日 上樑記'

적었다. 또 「논산쌍계사봉황루상량문」(1741)³³⁾이나 「고창문수사문수전상량문」(1805)³⁴⁾처럼 후대에 사용된 일부 사례들도 있다. 모두 글자 수가 적고, 작가도 알 수 없는 것이 종전까지의 발원문과 같다.

수나라장의 ‘긴 상량문’(1622)과 같은 유형은 전국 각지의 사찰들에서 확인된다. 먼저 원찰조영 때의 사례로는 「구례화엄사각황전중건상량문」(1701)³⁵⁾과 「용주사창건상량문(1790)」이 있다. 전자는 사간원 정인 채팽윤(蔡彭胤, 1669~1731)이 지은 1,827자의 ‘긴 상량문’이다.³⁶⁾ 다만 결사 뒤에 전체 1/3에 달하는 662자로 원문과 관계자이름이 적혀 있다.³⁷⁾ 후자는 영의정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이 현릉원 능침사찰의 조영 때 쓴 993자의 ‘긴 상량문’이다. 원문이나 관계자이름이 없는 것이 궁실건축이나 앞서 유몽인이 지은 수나라장의 ‘긴 상량문’과 형식이 똑 같다.

한편 일부 사찰은 1600년대 중반부터 ‘긴 상량문’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범어사심검당상량문」(1648)³⁸⁾, 「장안사대웅전상량문」(1657)³⁹⁾, 「범어사 대웅전 상량문」(1658)⁴⁰⁾ 등이 그 예들이다. 다만 도입 후 얼마 지

나지 않아선지 서사와 본사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문체도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1700년대부터 ‘긴 상량문’이 보편화된 때문인지 많은 사찰들이 이를 사용했다. 「동화사봉서루상량문」(1730)⁴¹⁾, 「해인사흥제암상량문」(1731)⁴²⁾, 「참당사법당상량문」(1753)⁴³⁾, 「범어사보제루중건상량문」(1812)⁴⁴⁾, 「도감사미륵전4중창상량문」(1835)⁴⁵⁾ 등 전국에 걸쳐 사례가 많다. 모두 승려들이 지었지만 형식적인 면에서 최고위관료가 지은 궁실건축의 ‘긴 상량문’과 다를 바 없다. 서사는 ‘절이(竊以)’나 ‘부(夫)’로, 본사는 ‘유(惟)’나 ‘희(噫)’와 같은 첫말로 시작하고, 육위송도 6방에 걸쳐 7인 3구씩 18구로 읊고, 결사도 ‘복원상량지후(伏願上樑之後)’로 시작하는 등 고정된 격식을 갖추고 있다. 다만 4단락의 말미에는 반드시 시주자와 공역자, 사임승 등 관계자이름을 망라하듯 적은 탓에 글자 수는 궁실건축의 경우보다 더 많다. 어떻게든 주요 공정마다 발원문을 적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 상량식에 맞춘 ‘긴 상량문’의 사용이 불교계 전반에 걸쳐 보편화되기에 이른다.

다만 『시경』 등에서 유래된 ‘긴 상량문’은 궁궐조영을 이룬 임금의 덕업을 칭송하는 글이어서⁴⁶⁾ 불사 때의 발원문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런 만큼 ‘긴 상량문’의 격식을 따르지만 경전 문구를 구사하고 불교적인 전고

「부산 범어사 대웅전 상량문」(1658), 채록 때 오, 탈자가 많아서 필자가 재차 보정했다. 승 관해(觀海)가 지은 전체 733자의 중도리 밀면 묵서명으로, ‘긴 상량문’에 이어 저자와 당시 동래부사 민승중(閔昇重) 등 몇 명의 관계자이름을 적었다.

41) 고고미술동학회, 『한국고건축 상량기문집』, 유인물, 1964, 「대구 동화사 봉서루 상량문」(1730), 139~149쪽. 승 민찰(敏察)이 지은 전체 1,682자의 한지 묵서명으로, ‘긴 상량문’ 뒤에 1,198자에 걸쳐 관계자이름을 적었다.

42) 문화재관리국, 앞 책, 223쪽. 「합천 해인사 흥제암 상량문」(1731), 승 영규(靈珪)가 지은 전체 993자의 한지 묵서로, ‘긴 상량문’ 뒤에 관계자이름을 적었다.

43) 위 책, 113쪽. 「고창 참당사 법당 상량문」(1753), 전체 988자의 한지 묵서명으로, ‘긴 상량문’ 뒤에 무장현감 신단(申檀)을 비롯한 99명의 관계자이름을 적었다. 이담재(李聃再)라는 일반인이 지었다.

44) 「부산 범어사 보제루 중건 상량문」(1812), 2010년 해체 수리 때 필자가 채록한 전체 1,852자의 한지 묵서명으로 당시 동래부사 윤노동(尹魯東)이 지었다. ‘긴 상량문’ 뒤에 1,172자에 걸쳐 전체 승려들을 망라하듯 적었다.

45) 문화재관리국, 앞 책, 146~149쪽. 「영암 도감사 미륵전 4중창 상량문」(1835), 승 경은(景隱)이 지은 전체 1,326자의 한지 묵서명으로, ‘긴 상량문’ 뒤에 당시 및 이전 관계자이름을 연이어 적었다.

46) 서치상, 「고려시대 궁실건축 상량문 연구」, 건축역사연구, 25권, 6호, 2016. 12, 46쪽, 원래 ‘긴 상량문’은 궁궐조영을 축하하기 위한 송사(頌詞)였다. 고정된 격식에 따라 대구식 변려체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독립된 문체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고려 때부터 궁실건축에만 사용된 ‘긴 상량문’의 형식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33) 위 책, 101쪽, 「雙溪寺鳳樓臺上樑文」(1741), ‘乾隆六年五月十一日上樑 山中老德 懷聖…(중략)…三綱秩 首僧 守閑…(중략)…後佛 幀畫員秩 證師 頌行…(중략)…施主秩 大樑施主 鄭光碩 克察…(중략)…緣化秩 木手都片首 俊侃…(중략)…西邊掌 瑞應’

34) 「高敞文殊寺文殊殿上樑文」(1805),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上樑文集, 補修時 發見된 上樑文』, 1991, 126쪽

35) 문화재청, 『화엄사 각황전 실측조사보고서』, 2009, 80~82쪽

36) 서사는 ‘유로부터 무가 있고, 무로부터 유가 있음을 나는 이렇게 들었네(自有而無自無而有 如是我聞)’로 시작해서 대가람이 시고, 장육전이 지어졌지만 왜란으로 황폐화된 후 각성(覺性)이 중창한 일을 찬양했다. 본사는 ‘생각건대 우리 계과도인 성능은 물속 달이 수정을 머금은 듯, 구름과 안개가 베껴낸 듯 하시니(惟我桂坡道人性能 水月涵晶 雲霞寫質)’로 시작해서 불사를 추진한 일을 찬양했다. 육위송은 162자로 ‘아랑위포량동(兒郎偉拋樑東)’으로 시작해서 6방에 걸쳐 7인 3구씩 장육전을 중심으로 주변 경관을 노래하고, 결사는 ‘엿드려 비움건대 상량한 후로는(伏願上樑之後)’에 이어 불법용성과 왕실의 만수무강, 그리고 전쟁이 없기를 비는 내용과 함께 글쓴이와 일자를 적었다.

37) 결사 말미에 원당대시주로 연잉군(향후의 영조)과 생모 숙빈 최씨를 적고, ‘강희 40년(1790) 신사 11월 초2일 상량을 주관한 이는 성능(性能)이다. 이에 널리 원을 세운 이들을 봉축한다’는 문장에 이어 주상전하, 즉은 명성왕후 민씨, 세자전하(향후의 경종)의 삼전하축원문을 적은 후 제 왕자, 제 군, 제 궁실의 안녕, 문무백관과 도내 삼영 군병 및 중건공사에 일을 세운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가호를 받기를 기원하는 원문에 이어 다시 연잉군과 생모 숙빈 최씨 등 28명의 시주자, 3명의 화주와 목수 등 모두 31명의 이름을 적었다.

38) 「부산 범어사 심검당 상량문」(1648), 2016년 해체수리 때 중도리 밀면에서 발견된 1,093자의 ‘긴 상량문’이다.

39) 「기장 장안사 대웅전 상량문」(1657), 2009년 해체수리 때 중도리 밀면에서 발견된 1,184자의 ‘긴 상량문’이다.

40) 부산광역시, 『범어사 대웅전 수리공사 보고서』, 2004, 75쪽.

를 인용하며, 조영불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이름을 적어서 발원문을 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법보전 상량문(1624)과 같이 축약한 ‘긴 상량문’에 발원문을 조합한 사례도 있다. 주로 서사와 본사를 구분하지 않거나 육위송을 크게 축약한 탓에 글자 수는 많지 않다. 예컨대 「불영사영산전상량문」(1716)⁴⁷⁾은 특히 육위송을 6방에 걸쳐 ‘복이포량○(伏以拋樑○)’으로 시작해서 7인 1구씩 62자로 크게 줄였다. 또 1843년 공사 때의 790자로 된 글⁴⁸⁾은 ‘양지○혜(樑之○兮)’로 시작해서 4인 2구씩 72자만 적었는데 통식적인 육위송과 비교하면 1/3에 불과하다. 격식에 능숙하지 못했거나 무시한 탓이겠지만 글을 지은 승려 이름은 적었다.

그런데 송광사의 조선 말기 공사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보인다. 「하사당중건상량문」(1899)⁴⁹⁾이 그 예로, 서사와 본사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특히 육위송은 6방의 첫말을 ‘동’, ‘서’, ‘남’, ‘북’, ‘상’, ‘하’로만 적은 후 각 방에 걸쳐 5인 3구씩 96자에 불과하다.⁵⁰⁾ 이 밖의 10여 건들도 ‘진’, ‘리’, ‘태’, ‘감’, ‘건’, ‘곤’이라는 첫말에 이어 각기 5인 3구씩 적는 등 흥내만 낸 듯하다. 현종 8년(1842)의 <임인대화재(壬寅大火災)>⁵¹⁾로 소실된 건물들을 복구할 때 승 금명(錦溟)이 한꺼번에 지은 글들이다. 워낙 큰 사찰이었으므로 ‘긴 상량문’에 서툴렀던 것이 이유는 아닌 듯하다. 어쨌든 사례는 적지만 후대 불교건축 상량문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47) 문화재관리국, 앞 책, 「울진 천축산 불영사 영산전 중창 상량문」(1716), 163~164쪽, 육위송은 ‘拋樑東 三角巖對靑空 拋樑南 鍾岩飛下樓窺龍 拋樑西 芙蓉迥發巨蒼穹 拋樑北 金塔崔嵬萬丈隆 拋樑上 蒼天白日月輪風 拋樑下 鯨鬚能化玉作宮’으로 각 방에 걸쳐 첫머리에 ‘아랑위(兒郎偉)’는 생략하고, 7인 1구씩만 배당했다.

48) 위 책, 「천축산 불영사 영산전 상량문」(1843), 앞 책, 166~167쪽. 육위송은, ‘樑之東兮 三角峰頭 彌月重圓 樑之西兮 靈鷲高低 金塔撐天 樑之南兮 鍾岩高臺 神鳥含花 樑之北兮 寶蓋峯下 衆星環極 樑之上兮 慧月照朗 祥雲時降 樑之下兮 水輪平瀉 金蓮承足’이라 했다.

49) 위 책, 106~176쪽, 순천 송광사의 상량문들 중에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법성요 중창 상량문」(1839), 「대웅법당 중건 상량문」(1843), 「설법진 상량문」(1856), 「대장전 중건 상량문」(1856), 「원불당 중건 상량문」(1896), 「침계루 중건 상량문」(1897), 「행해당 중건 상량문」(1902), 「성수전 상량문」(1903), 「보조암 청원루 중건 상량문」(1905), 「국사전 중창 상량명 병서」(1911), 「철성각 상량문」(1913) 등이 있다.

50) 한국학문헌연구소, 한국사지총서 제2집, 『조계산송광사사고』 <건물부 상량문류>. 아세아문화사, 1983. 155~156쪽. 육위송은, ‘東靈泉似祝融 三日庵中老 默觀覓大雄 南忽地現優曇 大藏緣何到 聖恩獨此覃 西蒼峭壓曹溪 商風吹不盡 柯響自淒淒 北品類荷聖澤 翹首排極星 祥氣降紫極 上帝宮自晃郎 河漢牽牛翁 迢迢生角亢 下乾坤摠一馬 何事不修禪 痴痴居大厦’라 했다.

51) 한국학문헌연구소, 앞 책, <壬寅火災報>, 925~927쪽

5. 맺는말

광해·인조연간의 해인사 수다라장과 법보전 중수공사 때 각기 다른 세 형식의 상량문이 작성되었다. 이 공사는 임진왜란 이후 최초의 원당사찰 공사로, 광해군의 비 문성군 유씨를 비롯한 궁중여인들이 대거 공덕주로 참여했다. 유씨가 독실한 불교신자인 데다 왕의 6번째 존호 수여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해인사를 원당으로 지정하고 대시주로 나섰던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수다라장은 광해 14년(1622)에 상량했지만, 법보전은 인조반정으로 2년 후인 인조 2년(1624) 4월에야 상량했다. 대공덕주들이 죽는 등 왕실과의 관계가 끊어진 때문으로, 각기 다른 세 형식의 상량문이 작성된 배경이기도 하다.

수다라장(1622)의 2건 중의 1건은 불교계가 오래 전부터 입주, 상량, 단청 등 주요 공정 때 공사일자, 원문, 관계자이름을 부재에 적는 발원문이다. 다른 1건은 기문 장치 넣어둔 한지 목서로, 궁실건축에 사용하던 ‘긴 상량문’이다. 그리고 법보전(1624)의 1건은 ‘긴 상량문’을 축약해서 원문과 관계자이름을 조합한 부재 목서이다.

이처럼 같은 공사에 다른 세 형식의 상량문이 사용된 데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불교건축에 처음 사용된 ‘긴 상량문’은 광해 14년(1622) 수다라장 공사 때 최고위관료로 문장으로 이름이 높았던 대사간 유몽인의 글이다. 당시까지 궁실건축에만 사용되던 ‘긴 상량문’이 임진왜란 직후 왕실이 지원한 원당사찰 공사를 계기로 처음 전해진 것이다. 이를 통해 ‘긴 상량문’이 불교계에 도입된 시기와 함께 그 작성 배경을 알 수 있다.

둘째, 수다라장 공사 때 발원문 형식의 글을 따로 작성한 데서 ‘긴 상량문’만으로 불사에 사용하기 어려웠던 당시 불교계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 비록 왕실에서 내려준 글이지만 원문이나 관계자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탓에 발원문으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긴 상량문’이라는 새 형식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보다 여전히 전통적 관례를 따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2년 후 법보전 공사 때 축약한 ‘긴 상량문’에 원문과 관계자이름을 조합한 독특한 형식의 상량문을 만들게 된다. 당시는 인조반정으로 폐비 유씨를 비롯한 공덕주들이 죽는 탓에 이들의 명복을 비는 발원문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러나 ‘긴 상량문’은 이에 적합하지 않고, 그렇다고 발원문 형식의 글을 따로 짓기도 맞지 않는 일이었다. ‘긴 상량문’의 형식에 죽은 공덕주들을 위한 원문과 관계자이름을 조합해서 하나로 만들게 된 것

이다. 다만 ‘긴 상량문’을 내려줄 왕실이 사라진 탓에 일반 신도가 지은 ‘긴 상량문’ 부분은 크게 축약된 데다 격식도 맞지 않는 등 대단히 서툰 느낌이다. 그럼에도 ‘긴 상량문’의 구색을 갖추하고자 한 데서 이를 적극 수용하는 한편 원문과 관계자이름을 붙여서 발원문으로 사용하려던 나름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넷째, 수다라장과 법보전 상량문의 세 형식은 이후의 불교건축에 그대로 사용되었다. 다만 전래의 발원문 형식은 임진왜란 직후 일부 사찰에서 사용되기는 했지만 이후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축약한 ‘긴 상량문’도 이례적으로 순천 송광사와 같은 큰 사찰의 특정 시기 공사에서 확인될 뿐 그 사례가 별로 없다. 반면에 수다라장의 ‘긴 상량문’ 형식은 17세기 중반 일부 사찰을 시작으로 18세기 이후로 대부분의 사찰들이 즐겨 사용해서 인지 현전 사례 중에서 가장 많다. 유교경전에서 유래된 새 형식의 ‘긴 상량문’이 도입된 지 불과 20여 년이 지나면서 불교건축 상량문의 주된 유형으로 자리 잡게 된다. 주로 사적과 조영연혁, 불교설화 등을 내용으로 사찰 승려들이 직접 짓게 되지만 문장의 구성이나 격식은 궁실건축과 다를 바 없다.

다섯째, ‘긴 상량문’은 조선 후기 전반에 걸쳐 불교건축 상량문의 주된 유형으로 자리 잡게 된다. 수다라장 공사 때 따로 작성된 신·구 두 형식이 2년 후 법보전 공사 때 하나로 합쳐져서 이후 불교건축 상량문의 주된 유형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불교계 나름의 해법에서 만들어진 탓에 상량식 때 국왕 등 건축주의 덕업을 칭송하는 송사였던 궁실건축 ‘긴 상량문’과는 차이가 있다. 불교적인 내용과 문체는 차치하고라도 발원문을 곁들이했으므로 ‘긴 상량문’ 뒤에 반드시 원문과 관계자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글자 수가 1천 여 자 이상으로 궁실건축보다 훨씬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이 광혜·인조연간의 해인사 수다라장과 법보전에 사용된 세 상량문은 불교계에 ‘긴 상량문’이 최초 도입된 시기와 그 배경을 알게 해줄 뿐 아니라 이후 불교건축 상량문의 유형적 선구로서 의미가 크다. 다만 여기서 다루지 못한 형식도 있다. 임진왜란 직후 북구공사 때 사적이거나 연혁을 1~2백여 자로 적은 후 공사일자와 원문, 관계자이름을 적은 글들이다.⁵²⁾ 금번 연구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만큼 후속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52) 이러한 예로, 「안동 봉정사 극락전 상량문」(1625), 「부산 운수사 대웅전 묵서명」(1655), 「산청 울곡사 대웅전 상량기」(1679) 등이 있다.

참고문헌

1. 고고미술동인회, 『한국고전물상량기문집』, 1964
2. 한국미술사학회, 『고고미술 상, 하권』, 통문관, 1979
3.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상량문집 - 보수시 발견된 상량문』, 1991
4. 한국불교연구원, 『한국의 사찰 7, 해인사』, 일지사, 1975
5. 한국불교연구원, 『한국의 사찰 8, 화엄사』, 일지사, 1976
6. 해인사·문화재청, 『해인사 장경판전 실측조사보고서』, 2002
7. 문화재청, 『화엄사 각황전 실측조사보고서』, 2009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부록』 <자료·해제편>, 1999
8. 한국학문헌연구소, 『조계산송광사사고』, 아세아문화사, 1983
9. 이지관, 『가야산 해인사지』, 가야문고, 1991
10. 문화재관리국, 『영주 부석사 보수정화 준공보고서』, 1980
11. 부산광역시·금정구청, 『범어사 대웅전 수리공사 보고서』, 2004
12.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범어사 보제루 해체 및 중창공사보고서』, 2011
13.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범어사 삼층석탑 주변정비(비로전) 수리보고서』, 2014. 8
14. 대한불교조계종 장안사, 『장안사 정비기본계획』, 2013.1 11
15. 『광해군일기』
16. <한국고전번역원 누리집>(http://www.itkc.or.kr/)
17.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상권』, 보림각, 1981
18. 박용숙, 「조선조 후기의 승역에 관한 고찰」, 『논문집』, 부산대학교, 1981
19. 서치상, 「고려시대 궁실건축 상량문 연구」, 건축역사연구, 25권, 6호, 2016
20. 서치상, 「여말선초 목조건축 부재 묵서명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7권, 3호, 2018

접수(2019. 12. 17)

수정(1차:2020. 2. 18)

게재확정(2020. 2. 25)